

경제 회복 더딘 전남, 중기 신규 대출 '역대 최고'

1분기 광주 3700억 감소한 9298억·전남 700억 늘어난 6631억원 광주 포함 전국 5곳만 감소...전국 중기 대출 20% 증가한 38조원 전남 예금은행 대출액 26.6% ↑ 2430억·비은행권 4.4% ↑ 4201억

올해 1분기 중소기업 신규 대출액이 광주는 전년보다 3700억원 넘게 감소한 반면, 코로나19 침체에 대한 회복세가 더딘 전남은 700억원 가까이 늘어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지난 31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예금취급기관의 중소기업 신규 대출액은 광주 9298억원·전남 6631억원 등 1조592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1조8978억원)보다 16.1%(-3049억원) 감소했다.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통계를 낸 2016년 이후 중소기업 신규 대출액 역대 최고를 기록한 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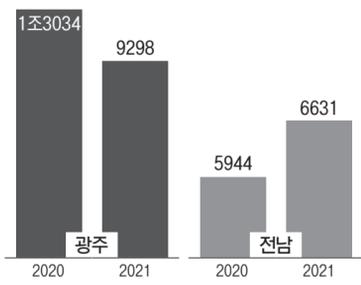
중기 대출 광주·전남 합산액은 감소했지만, 두 지역을 나눠보면 광주 신규 대출액은 크게 줄어든 반면, 전남은 '두 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냈다.

광주 중소기업 1분기 신규 대출액은 9298억원으로, 1년 전(1조3034억원)보다 28.7%(-3736억원) 줄었다. 하지만 전남은 지난해 1분기 5944억원에서 올해 6631억원으로 11.6%(687억원) 늘었다.

전국 중소기업 대출액 합계는 37조6167억원으로, 전년보다 20.1%(6조2826억원) 증가했다. 대출액 증감률을 17개 시도별로 살펴보면 대구가 88.8%로 가장 높았고, 지난해에 비해 줄어든 지역은 전북(-40.4%)과 제주(-32.0%), 광주(-28.7%), 인천(-26.8%), 세종(-8.6%) 등 5곳으로 나타났다.

지역 중소기업들이 돈을 빌린 금융기관 유형을 살펴보니, 광주의 경우 예금은행과 2금융권 모두 대출액이 감소했다.

■광주·전남 중기 1분기 신규 대출액
※예비은행·비은행 예금취급기관 합산액, 단위·억원



올 1분기 광주 예금은행 대출액은 6026억원으로, 전년보다 36.6%(-3472억원)이나 감소했다. 2금융권인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대출액도 3536억원에서 3272억원으로 7.5%(-264억원) 줄었다.

전남은 예금은행 대출액이 크게 늘었다. 1분기 중기 예금은행 신규 대출은 2430억원으로, 전년

보다 26.6%(510억원) 늘고, 비은행권은 4.4%(177억원) 증가한 4201억원을 나타냈다.

한편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지난해 지역 산업 대출금은 광주 3조1410억원·전남 1조4843억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142.0%, 193.1% 증가했다.

제조업 신규 대출은 광주는 150.6% 증가한 6278억원, 전남은 90.9% 늘어난 3278억원으로 집계됐다.

광주에서는 도·소매업 신규 대출금이 5354억원으로, 전년의 3.8배(277.8%) 수준으로 뛰었다. 도·소매업에 이어 대출 증가액은 제조업(3773억원), 부동산업(2925억원), 공공행정 등 기타 서비스(1928억원),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1372억원), 숙박 및 음식점업(127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전남 산업별 대출금 증가액은 공공행정 등 기타 서비스(3478억원), 숙박 및 음식점업(1698억원), 제조업(1561억원), 정보통신업·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1099억원), 도·소매업(1066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3203.92 (+15.19)
↑ 코스닥	981.78 (+4.32)
↑ 금리(국고채 3년)	1.227 (+0.065)
↓ 환율(USD)	1110.90 (-4.60)

거리두기 '탄력적' 완화 소비활성화 효과 컸다

개편 3주간 농협카드 사용액 담양 11.5%·곡성 9.1% 상승

사적모임 인원을 6인까지 허용하는 전남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행된 뒤 3주 동안 소비가 가장 크게 늘어난 곳은 담양이었다고, 고흥은 22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두 자릿수' 감소율을 나타냈다.

이는 NH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가 전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행된 5월3일부터 23일까지 3주 가량의 NH농협카드 사용액을 분석한 자료에 담겼다.

에너지신산업분야 기업 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

광주테크노파크 7일까지

광주테크노파크는 오는 6월7일까지 에너지신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광주 국가혁신클러스터 기업 지원 사업' 수혜기업을 모집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국가혁신클러스터지원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광주시 지원을 받아 광주테크노파크와 한국광기술원,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혁신클러스터 기업을 육성해 클러스터 경쟁력 강화 및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광주시 남구 도시첨단산단과 광주 에너지밸리 일반산단, 첨단과학국가산단(1~2단계) 등 9개 산업단지에 위치한 에너지신산업(에너지관리·에너지저장·분산발전시스템) 관련 전·후방기업이다.

30개사 내외의 기업을 선정해 수요에 따라 기획력 강화, 시제품, 특허 등 사업화를 지원한다. 또 인공지능과 에너지신업을 연계한 지원프로그램에 총 7억4000만원을 지원한다. /박기용 기자 pboxer@



"환경 아끼는 캠핑 떠나세요" 지난 31일 광주신세계 직원들이 친환경 캠핑 브랜드 '제로그램' 매장에서 관련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 매장은 10일까지 운영된다. (광주신세계 제공)

자동차 생산 42% 급증...광주 광공업 생산 지수 증가율 '전국 최고'

4월 광주 35.9% ↑ 10년 2개월 만에 최대폭...전남 8.6% 상승

4월 광주 광공업 생산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 31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4월 산업활동 동향' 결과에 따르면 지난 4월 광공업생산지수(금액)는 1년 전보다 광주는 35.9%, 전남은 8.6% 증가했다.

전국 평균 증가율은 12.4%이었으며, 대구가 23.8%로 광주 뒤를 이었고, 경기(22.5%), 인천(13.9%), 세종(13.8%), 대전(13.1%) 등 순으로 높았다.

광주의 이 같은 증가율은 지난 2011년 2월(37.0%) 이후 10년 2개월 만에 가장 높다.

광주 광공업 생산의 폭발적인 증가는 자동차 업종이 이끌었다.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생산액은 1년 전보다 42.3% 급증했다. 이 같은 증가율은 2017년 8월(46.6%) 이후 가장 높다.

이외 전기장비(56.3%), 고무 및 플라스틱(49.3%)이 큰 폭으로 늘었으며 식료품(-19.7%), 음료(-8.7%) 등은 줄었다.

전남 광공업 가운데서는 지역 주력 업종인 화학제품(11.6%)과 1차금속(24.6%) 생산이 증가했다.

화학제품 생산액은 올해 1월 들어 전년보다 7.7% 감소했지만, 2월(5.4%)과 3월(12.6%), 4월(11.6%) 등 석달 연속 증가 추세다.

전기·가스·증기(-4.4%), 금속가공(-22.9%), 식료품(-9.7%) 등은 줄었다. /백희준 기자 bhj@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가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